

교환학생 파견자 수기

Texas A&M University

김효순

2010년도 교환학생 파견 때, 교환학생 선배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많이 답답 했는데 글로나마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1. 준비해야 할 것

- 짐을 현명하게 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게 20kg로 제한된 큰 짐가방 2개를 무료로 수화물로 붙일 수 있고 20인치의 기내용 가방을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내 캐리어는 무게를 재지 않기 때문에 구지 책을 가져가고 싶다면 20인치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여행을 다닐 때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배낭을 매고 가는 것보다 훨씬 편리해서 20인치를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생필품(헤어,바디,식기류)을 비롯한 침구류는 현지 마트 (월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기도 하고 짐을 줄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구도 챙겨가는 것이 좋은데, 너무 많이 챙겨가면 돌아올 때 짐이 될 수 있으니 최소한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 옷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텍사스의 경우 여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름옷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겨울 옷을 안 가져 가면 1월 내내 추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텍사스는 구지 온열매트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집에서 안 입는 옷들을 가져가서 입다가 버리고 와야 겠다는 생각이라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입고 다니지 않았던 옷들은 가셔도 안 입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기 초에 주변 상인 및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데, 공짜 티셔츠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를 비롯하여 발표수업의 경우를 대비해서 흰색의 캐주얼한 블라우스와 어두운 계열의 치마를 챙겨가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 미국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 사귀 모든 친구들에게 주려면 부담이 크니 생일을 맞이했거나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한국 전통문양이 새겨진 책꽂이나 필통 등 저렴하지만 의미있는 것이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 컴퓨터를 한 번 점검하거나 새 제품을 구입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3년 반 정도 사용한 노트북을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 갔는데, 미국에 도착한지 일주일 만에 하드가 고장났습니다. 더구나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아서 3.5년 간의 대학생활을 전부 날려 버렸습니다. 레포트, 발표자료, 사진 등 귀중한 자료들을 외장하드를 구입해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안과에 가서 시력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영문으로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시력 검사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더라도 나중에 큰 돈을 쓰지 않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가까운 은행에서 은행계좌를 여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텍사스 A&M 은 Wells fargo 은행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교내에서도 ATM에서 출금이 쉬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각 학교마다 선호하는 은행이 있으니 확인 후 계좌를 열면 됩니다. 여권만 있으면 되는 데,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물어볼 경우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니 임시로 다른 번호를 입력해두면 됩니다.
- 각 학교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해야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설명한 대로만 따르면 되는 데,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학교 내 계정을 만들고 은행계좌를 연동하면 기숙사비와 밀플랜, 보험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입사를 위한 결핵검사 후, 문제가 발생하면 약을 처방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과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찾아가기 전에 미리 듣고 싶은 수업목록을 작성해가면 담당자가 교수님과 상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간혹 메일로 연락이 안될 경우에 전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인원이 꽉 차면 못 듣게 될 수 있습니다.

2. 조심할 것

-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계속 인연을 이어갈 기회가 많은 데, '내가 여기에 온 이유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의지한 것이 두 번, 세 번으로 늘고 미국친구를 사귀기 보다 한국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영어공부에도 소홀하기 쉽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한국과의 소통을 조금은 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키고 한국에서 사용하던 메신저 프로그램을 먼저 켜게 되는 데, 이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횟수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전화도 일부러 가입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기숙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편하고 좋습니다.
- 특히 고학년의 경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나 없이도 가족과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는 데 대해 질투를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 현지 생활에 충실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 미국인들의 성향이나 습관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동성친구끼리는 손을 잡거나 신체접촉을 대체로 하지 않는 다는 것과 '내 것'과 '타인의 것'이 확실히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거나 가벼운 인사를 하는 것 등 몸소 느끼면서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 룸메와 1년 간 생활하는 것이 보통인데, 학기 초에 기숙사에 체크인한 후 가까워지기 위해 외식도 하고 영화를 보러갈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온지 얼마 안된 상태라 말하는 것도 두렵고 해서 3~4번 정도를 거절했더니 그 뒤로 룸메와 많이

서먹해져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혼용 기숙사를 선택하면 룸메는 동성으로 배치되지만 옆방, 뒷방은 이성으로 배치가 됩니다. 또한, 룸메가 이성친구를 데리고와서 같이 놀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싫다고 하면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올 때마다 도망가면 그게 당연히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은 듯 합니다. 그리고 룸메의 남자친구가 너무 드나든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파티에도 초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오히려 둘이 있는 것 보다 셋이 있을 때 더 편하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3. 기타 추천하고 싶은 것

- 전공에만 매달리지 말고 흥미를 느끼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전공만 신청해서 듣다 보면 자칫 따분하거나 혹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전공의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양과목 혹은 다른 전공과목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소 4개의 과목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2과목은 전공을 2과목은 교양 혹은 흥미 있는 과목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전공수업 중에 교수님이 초청강연회에 가보라고 추천해주실 때가 있는데, 꼭 참석해서 값진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기제의 경우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특유의 휴일이 있으니 학기 초에 확인하셔야 하는데,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긴 휴일에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지리적으로 시골에 위치하기 때문에 명절에는 학생들이 각자 고향으로 떠나 유명도시가 되는데요. 학교 식당도 문을 닫아 3~4일 동안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큰 도시로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친구의 집에 방문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미국은 고 칼로리의 음식을 많이 먹는 대신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유산소 뿐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배워 가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국 전, 일부러 강도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갔음에도 5개월째까지는 1kg가 붙어났지만 겨울에는 운동을 소홀히 해서 총 4kg의 지방을 얻어왔습니다.
- 여학생들은 가방이나 옷, 화장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길텐데, 쇼핑에 대한 욕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해서 혹은 추수감사절에 폭탄세일을 하니까 꼭 사야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돌아와서 보면 쇼핑했던 돈으로 여행을 한 군데 더 다녀오는 것이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에 캐나다의 로키산맥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비용이 꽤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쇼핑했던 것들을 살펴보니 이 돈이면 로키산맥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어서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쇼핑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가능한 최소한으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은 프리페이드 폰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t-mobile에 패밀리 요금으로 3명의 친구와 함께 가입해서 고정적으로 32불 정도를 지불했는데, 10개월동안 400불을 쓰는

것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충전하거나 혹은 카드를 사서 쓰는 프리페이드 폰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손발을 청결히 하는 것 만으로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1~2짜리 물비누를 구비해서 손발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토플을 공부하면서 교환학생 준비를 하던 때의 간절함을 잊지 않고 생활한다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나면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목표가 사라져 허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김연아 선수도 금메달을 딴 후에 목표를 상실해 나와 같은 느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는데, 출국 전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교환학생 생활이 될 것입니다.